

이정현 대표 연일 파격 행보 주목 격식·인사 파괴... 정치권 새바람

최고위원의·월례초회 형식 타파·SNS 당원 모집... 대표 선출 첫 주말 지역구 순천 찾아 '막걸리 소문'

호남 출신의 첫 보수정당 대표가 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계속된 파격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주일 동안 격식 파괴와 광복 행보, 파격 인사 등으로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내년 대선 때 정권재창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고, 야당에서도 “주도권과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개각에서 이 대표가 제외한 ‘탕평 인사’를 수용할 경우 이 대표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당을 조화로운 개혁의 길로 이끌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재선의 윤영석(경남 양산군) 의원을 핵심 요직인 대표 비서실장에 기용했다. 윤 실장이 계파색이 없고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게 인선 이유다.

이 대표는 또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대를 찾아 인사했다. 8·9 전당대회 때 비주류 지지 입장을 보였던 김무성 전 대표는 물론 자신과 겨뤘던 이주영·주호영·한선교 의원에게도 인사 전화를 했다.

그는 ‘봉숭아 학당’이란 비판을 받은 최고위원회의를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개 발언으로 회의 토론과 논의 시간이 짧아지는 비효율을 고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언론에서 ‘최고위원들의 입을 막는다’고 비판하자 “정당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회의를 중심으로 하고, (최고위원) 개별적으로 할 발언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말씀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회동 결과도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했다. 그동안 회동에 배석한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함께 당직자 월례초회에서 격식 파괴를 시도했다. 연단에 나가 참석자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기존 형식을 거부하고 “우리 다 같이 빙 둘러 앉자”고 제안했다.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도 모두 건너뛰었다. 그는 “앞으로 내 방에 와서 예의 갖추고 격식을 갖추면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엔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주말을 맞아 지역구인 순천으로 내려갔다. 지역구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부모님도 찾아뵙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여름휴가 순천시내를 걸으며 역사문화와



원을 둘러보는 ‘달빛야행’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과 막걸리를 나눠 먹으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곡성의 부모님댁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선 공약

중 하나인 스마트모바일정당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SNS 당원을 모집해 모든 사안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법안을 만들거나 예산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SNS에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전해 듣고, 당비는 꾸준히 내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곳은 하나도 없는 당원들의 입지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선 인사에 대해 “지금 있는 기존 체제로도 잘 굴러갈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며 “그렇게 하면서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차츰 찾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주 내 당직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4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지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한국 대 카메룬 경기.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두며 A조 3위로 8강 진출을 확정짓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년만의 메달 도전 여자배구 8강 상대는 네덜란드

한국 여자배구가 40년 만의 올림픽 메달 획득을 향한 길목에서 네덜란드와 맞선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여자배구 8강 대진표를 발표했다. 이번 올림픽은 12개 팀을 두 조로 나눠 예선을 치르고 조별 상위 4개 팀에 8강 진출권이

을 줬다. 각 조 1위는 상대 4위와 맞붙고, 2·3위 팀은 추첨으로 상대 2·3위 중 한 팀과 상대한다.

한국은 A조 조별예선 최종전(5차전)에서 카메룬(21위)을 세트스코어 3-0(25-16, 25-22, 25-20)으로 완파했다. 총 승점 9(3승 2패)로 브라질과 러시아(이상 승점 12)

에 이어 A조 3위로 8강에 오른 한국은 16일 오후 10시 B조 2위(4승 1패) 네덜란드와 격돌한다.

한국은 네덜란드와 역대 전적에서 10승 6패로 앞선다. 세계 랭킹도 한국이 9위로, 11위인 네덜란드보다 두 계단 위에 있다. /연합뉴스

선수들과 웃고 울고... '리우 드라마' 특급 조연 광주·전남 출신 감독

남자양궁 박채순 전종목 석권 레슬링 안한봉 눈물의 오심 향의 골프 최경주 "직접 치고 싶었다"

지역 출신의 지도자들이 '태극 전사'들과 울고 웃으며 리우올림픽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 남자 양궁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2관왕에 오른 구본찬(현대제철)은 지난 13일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감독님이 시합 때 감박이를 안 넣고 ‘혹’ 들어와서 놀랐다”고 밝히 웃음을 자아냈다. 구본찬을 꺾고 놀라게 한 주인공은 남자 양궁대표팀 박채순(광주시청) 감독이다.

기보배(광주시청)를 세계적인 신궁으로 키운 박 감독은 이번 올림픽에서는 부드럽게 또 강하게 남자 대표팀 선수들을 이끌면서 전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뤘다.

해남 출신의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한봉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감독으로 선수들과 동고동락 구슬땀



박채순 감독



안한봉 감독



최경주 감독

을 흘리고 있다. 땀만 흘린 게 아니다. 15일 안 감독은 매트 위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75kg급 16강에서 로만 블라소프(러시아)를 만난 김현우가 3-6에서 종료 3초를 남겨놓고 가로등기에 성공했다.

석연찮은 판정 속에 4점 기술을 2점밖에 인정받지 못하면서 김현우가 패자가 된 것이다. 거칠게 향의를 하던 안 감독은 선수보다 더 서럽게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완도 출신의 '탱크' 최경주는 가슴 떨리는 생애 첫 올림픽을 치렀다. 선수가 아닌 남자 대표팀 감독이 그의 자리였다.

“직접 들어가서 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올림픽 참가 소감을 밝힌 최 감독은 “이달 말 시작하는 바르셀레 대회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며 선수들의 복귀를 알렸다. 이들 외에도 박광현(근대 5종), 노승석(육상), 남산호(사격), 김상열(하키) 코치 등 지역출신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더민주 당권 주자들 “내가 호남 적통”

광주·전주 합동연설회 뒷발 표심잡기 불꽃 경쟁 더민주 강령서 ‘노동자’ 삭제 놓고 당내 노선 갈등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후보들이 지난 13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와 전주에서 ‘호남의 적통’임을 내세우며 표밭 갈이에 나섰다. 호남 민심의 향배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당권 구도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호남의 맘 더너리’와 광주 출신임을 강조하며 호남의 ‘적통’을 자임한 반면, 이 후보는 호남 내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해 대조를 이뤘다.

광주 대의원대회에서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이 후보는 “이번 전대는 호남의 아들을 뽑는 전대가 아니다. 호남의 머-

리를 뽑는 전대가 아니다”라면서 “친노·친문 패권집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독립·연대·통합후보로 이종걸을 당 대표로 뽑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호남으로 시집은 머너리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집을 부흥시키겠다”면서 “호남정신을 외면해온 새누리당에 맞서고 분열을 막아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왜 호남이 더민주에 등을 돌렸는지 이유를 안다”면서 “더민주에 호남 여론을 제대로 반영시키겠다. 제가 당 대표가 돼 호남출대론 같은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 전문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강령 전문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중점한다”는 대목을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기 당권주자들을 필두로 당 내외 인사들이 잇따라 “노동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강령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중민 비상대책위원 대표 체제가 강령을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8·27 전대,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벌어질 노선투쟁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하나투어 신혼여행 박람회

허니문 박람회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기간 : 2016. 8. 20(토) ~ 8. 21(일)

| [프리미엄 로드샵] 신혼여행 박람회 추천 하나허니문 | | |
|--|--|---|
| <p>클래식 ADW104</p> <p>커플당 최대 110만원 SAVE 발리 6일 (풀빌라)</p> <p>1,94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제스틱 포인트 3베드 풀빌라 🕒 매주 토/일/월 ✈️ 가루다항공/대한항공 🎁 24인치 대형화물용 캐리어 증정 🎁 마사지&스파3회+집바란 씨푸드 | <p>클래식 PAW401</p> <p>커플당 최대 100만원 SAVE 시드니/골드코스트 6/7일</p> <p>2,040,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성급 호텔 🕒 매주 토/일/월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호주산 양모 이불/호주산 와인 증정 1병 | <p>클래식 PFW444_C</p> <p>커플당 최대 100만원 SAVE 팔라우 6일퍼시픽리조트</p> <p>1,890,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라우 퍼시픽 리조트 🕒 매주 일요일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만다라 스파마사지 포함 🎁 허니문 전용 트와일라잇 라이프랜드 포함 |
| [이달의 여행지] 필리핀 하나Pack | | |
| <p>클래식 APP110</p> <p>[하나투어/쇼핑] 특급 리조트 보라카이 5일</p> <p>50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브 스위트 리조트 (디럭스 룸) 🕒 매일 ✈️ 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필리핀항공 🎁 라바스톤 마사지 | <p>캐주얼 APP113</p> <p>2016 신규 오픈 리조트 보라카이 5일</p> <p>83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뽀뽀 리조트&스파 보라카이 🕒 매일 ✈️ 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필리핀항공 🎁 황제마사지/호핑투어/아도보 특식 | |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유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액의 선택에 대한 자유로 선택권은 있지만, 선택권과 관련된 비용은 고객에게 부담됩니다. (저렴한 내용은 알리지 않습니다.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비] 여행경비 포함 상품에 따라 여행경비가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 [관광사]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1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처리]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여행 상품] 22억 1천만 원 가액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에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권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의 금액 및 선택권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필수 신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